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현대적으로 개건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의 의도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부지런적은 전혀 늘이지 않으면서도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새로 개건한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지난 시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일떠선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발전로정을 감회깊이 돌아켜보시면서 공장이 완공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만족하시며 한번 나와보시겠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이렇게 현대적으로 개건된 공장에 장군님을 한번 모시였다 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와 인기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비결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어느 한순간도 생산을 멈추지 않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악하게 투쟁한데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어려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세상에서 제일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생산하는것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과 생산실태, 제품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금컵체

육인종합식료공장의 현대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었다고 하시면서 공장현대화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것은 고도로 집약화된 생산공정들을 꾸려놓은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이 현대화된 결과 우리의 식료공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도약시킬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하시면서 중앙과 지방의 식료공장들과 련관부문의 일군들을 참관시키고 따라배우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생산공정들마다에서 우리의 식료품이 폭포처럼 쏟아지고있는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공장을 현대적으로 훌륭히 개건한 해당 부문과 공장, 속도전 청년돌격대의 일군들, 종업원들, 돌격대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처럼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지니고 애국의 피와 땀을 바쳐가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것을 만들어내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인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찾아한다면 인민생활향상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비결은 일군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당정책관철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해당 부문과 공장일군들의 공로를 거듭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에서 계속 자랑찬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식료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

이 곳곳마다에 어려있는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맡겨진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면서도 당의 의도대로 현대적인 가방용천생산지기를 꾸리느라 수고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생산한 가방용천을 가지고 만든 여러가지 학생용가방들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의 학생들이 리용할 여러가지 형태의 가방들을 일일이 보시면서 성별과 연령심리적, 신체적특성에 맞게 손색없이 잘 만들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꾸린 가방용천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 꾸려진 가방용천생산공정은 완전히 국산화된 생산공정, 당에서 바라는 우리 식 생산공정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고있는 데르론인견실을 가지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유연창대직기와 고온고압로염색기 등을 가지고 가방용천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는데 생산공정의 국산화실현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능력이 대단히 큰 가방용천생산공정이 꾸려진데 맞게 학생들의 책가방은 물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고 다양한 형태의 가방들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인견천직장, 직포종합직장, 염색종합직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학생교복천을 비롯한 질 좋은 옷감과 각종 천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일데 대한 문제,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사업을 더욱 잘 할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개선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등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

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가방용천생산공정에 갖추어진 모든 설비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창조적인 지혜와 열정이 깃든 명실공히 우리의것이라고 하시면서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한 해당 부문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평양방직기계공장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 로동계급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남의 덕으로가 아니라 자기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자기의 힘을 천백배로 강화해 나가는것이 바로 자강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고 해도,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고 해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만부하로 돌아가고있는 공장을 보니 정말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 울려 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 자력갱생의 동음소리는 머지않아 세상만물을 누리며 살게 될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혁명승리의 동음소리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원수들에게는 무서운 철추를 내리는 징벌의 동음소리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며 기적과 위훈을 떨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이어받아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할수 있게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정책관철의 본보기공장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시대의 벽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높은 생산성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자강의 힘

최근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에서의 대성공은 반만년민족사의 대경사이고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변으로 되고있다. 정의와 진보를 지향하는 많은 나라들과 국제사회, 언론들이 놀라움과 경탄을 표시하고 조선이 취한 단호한 전략적결단에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소탄을 만들어낸 조선의 신비한 힘의 비결에 대해 저마다 알고 싶어하고 있다.

그 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강력이라고 할수 있다.

자강력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이다. 자강력의 원천은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다. 공화국은 수소탄시험성공으로 자기의것이 제일이고 자강력이 제일이라는것을 세계에 립증하였다.

일반 핵무기보다 수백배의 위력을 가지는 수소탄은 결코 수월히 만들어낼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그것을 만들어내자면 높은 핵융합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핵융합반응은 핵분열반응보다 일어나기 훨씬 힘들다. 핵분열반응은 중성자에 의해 쉽게 일어나지만 핵융합반응이 일어나자면 양전기를 띤 핵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인 밀집을 극복하고 서로 합쳐질수 있도록 마주 향하는 운

동속도가 매우 커야 한다. 그러자면 수소기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하면서도 자연적인 핵융합로로서 그 내부온도가 1500만°C이상인 태양에서와 같이 보통 수천만°C의 온도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며 압력도 매우 높게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극히 높은 온도와 압력을 핵분열폭발에 의하여 조성함으로써 수소의 동위원소들인 중수소와 초중수소의 핵융합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열핵무기가 다름아닌 수소탄이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수소탄을 보유한 나라는 5개 나라 즉 유엔상임리사국들뿐이다.

수소탄을 보유한다는것은 과학기술적으로 볼 때 핵분열기술과 함께 첨단과학기술의 종합체로서 그 나라 과학기술발전수준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되는 핵융합기술을 소유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특히 수소탄은 기술공학적으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공화국은 이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함으로써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가져왔다. 미제의 끈질기고도 집요한 핵협박으로부터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

키는 길은 오직 자기 힘뿐이었다. 하여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수소탄시험의 성공을 기어이 안아온것이다.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시정책과 핵공갈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면 자위의 억제력을 취하여야 한다는 민족사적인 사명감과 결사의 각오가 령도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조선에서 수소탄시험성공의 력사적사변을 더욱 추동하였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은 창건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강력을 제일가는 힘으로, 생존방식으로 여겨왔다.

일제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면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히시었다.

이 위대한 사상을 국가건설과 발전의 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일관하게 관철하여온 공화국이다.

공화국이 걸어온 길은 전인미답의 힘겨운 길이었다. 모든것을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야 하였다. 거기에서 조선이 가는 길을 막고 굴복시키고 봉기시키려는 적대

세력의 갖은 위협과 제재수동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었다. 하기에 자강력의 기치를 들고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자기 식 발전과 승리의 길을 걸어온 공화국이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과 전후 폐허우에서 사회주의공업화를 빠른 시일안에 실현할수 있는것도 그리고 지난 세기 90년대련이 자연재해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준엄한 난관과 시련이 겹치었던 력사에 튼튼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할수 있는것도 바로 자강력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이렇듯 자강력은 공화국의 전 발전력사에 관통되어있는 역센 전통이고 힘이다.

자기의 자원과 기술, 자기의 피와 땀으로 제 삶의 보금자리를 가꾸는데서 생의 보람과 행복을 찾게 하는 자강력은 최근년간에 그 생활력을 과시하며 더 높이 발휘되고있다.

몇해여간에만도 자강의 정신, 자강의 힘으로 얼마나 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는가. 자강력이 있어 1년을 10년맞잡이로 비약하며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

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경쾌하게 달리는 희한한 전변의 화폭들이 펼쳐졌으며 인공지구위성이 련속 우주에 오르고 바다수면을 뚫고 전략잠수함에서 발사된 탄도탄이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격동적인 사변도 일어났다.

무에서 유를 낳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자강력에서 온 높은 위력한 수소탄까지 태어났다.

자강력이야말로 공화국의 최강의 힘이고 영원한 기적창조와 승리의 커다란 원천이라 해야 할것이다.

이 자강의 힘이 있어 공화국은 두려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게 되었다. 자기의 결심과 의지, 자기 힘으로 세계에서 제일가는 수소탄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다른 그 무엇인들 못 만들겠는가. 그 기상, 그 힘이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은 문제가 아니다.

적대세력들이 선군조선의 의지를 꺾고 가는 길을 막아보려고 압력과 제재, 위협수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려도 그것은 자강력을 틀어쥔 조선에게는 지나가는 바람소리밖에 들리지 않을것이다.

정의도 조선에 있고 힘도 조선에 있다. 승리도 공화국의 것이다.

수소탄까지 보유함으로써 공화국은 적대세력의 압살기도를 산산조각내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평화적건설에 더 큰 힘을 돌릴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신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의 말씀은 자강력만이 우리를 잘살게 하는 길이며 이길우에 민족단체의 번영과 행복이 있다는 철의 진리를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준다.

자강력을 제일보검으로 틀어쥔 공화국은 머지않아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자랑스럽게 선언할것이다.

표 화 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 ↑ ) 와 자체의 기술로 만든 지하전동차 ( → )



예로부터 자식들이 구실을 못하면 집안이 망하고 청년들이 구실을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다.

사회발전에서 노는 역할이 그 어느 세대에 비할바없이 큰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결정되는것이다.

하기에 청년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특히 반인민적악정과 경제적착취, 폐륜폐덕과 인간중요가 범람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청년문제는 사회의 골치거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문제로 되고 있다.

청년문제해결의 진정한 길을 모색하는 나라와 민족들의 숙제에 조선이 답을 주고있다.

얼마전 세계의 한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올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라는 부름외에 청년강국이라는 새로운 부름이 있다. 기나긴 인류력사에 청년강국이라는 말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불타는 충정,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결한 의리심, 아름다운 도덕기풍은 조선청년들의 고유한 특질이다. 조선이야말로 끝없이 밝은 미래를 가진 청년의 나라,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 강국!

이것은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가질수도 없는 오직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는 경이적인 현실이다.

피끓는 청춘의 손에 조국수호의 총검을 추켜든것도, 경제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곳에서 열혈의 몸과 열정으로 최첨단돌과전의 제1번수가 되고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이는 주인공도 바로 청년들이다. 동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고 혁명선배

## 청년강국으로 빛나는 나라

들의 아들딸, 영예군인의 길동무, 《처녀어머니》가 되어 일심단결의 화원에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며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미담들과 미풍을 창조하는 선구자들도 다름아닌 청년들이다.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 공화국의 청년들은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 미래의 주인공들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돌이켜보면 나라없던 그 세월 일제의 대포밥으로 남의 땅에 끌려가 억울하게 생을 마쳐야만 했던 식민지조선의 청년들이 어떻게 오늘날은 온 세상이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는 존엄높은 청년

강국의 주인으로 되게 되었는가.

이것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내다보시고 청년문제를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한 중차대한 전략적인 문제로,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청년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떠메고나갈 역군의 역할을 다하도록 현

## 청년강국으로 빛나는 나라

명하게 이끄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청년중시의 숭고한 뜻을 이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의 명절인 청년절을 제정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로력적 위훈이 깃든 창조물들에 청년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달아주시어 시대의 주인공들로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정치를 그대로 이으시어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어깨결고 함께 나아가야 할 동지, 전우로 굳게 믿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높이 모신것은 조선청년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행운이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를 맞은 수백만 청년들에게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라는 크나큰 믿음과 고무의 친필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수호의 머나먼 전선길에서 청년절을 뜻깊게 보내도록 사랑의 조치도 취해주시고 청년절경축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축하문도 보내주시었다.

지난해 5월에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를 열도록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품모와 미풍은 진주보석에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것이라고 값높이 내세워주시면서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

사진을 찍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도 여러차례 찾아주시면서 청년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고무도 안겨주시고 120여일간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려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청년들을 청년강국의 주인들로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청년중시의 정치를 펼치는 절세위인이 계시고 그의 부름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수백만 청년전위, 맹장의 대부대가 있기에 공화국은 활력이 넘치고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김철진

## 시 민족의 수호자

김 송 립

대용단이였다 그것은 대결단이였다 새해 2016년의 서막 수소탄의 폭음으로 열어제길 최종명령서에 원수님 엄숙히 수표하신것은

힘이 약하면 민족의 운명 지켜낼수 없기에 핵무기를 휘두르는 침략자의 전횡 더이상 묵인할수 없기에 단연코 정의의 수소탄폭음을 울리신

오, 그이는 불세출의 천출명장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끈질긴 고립과 압살의 광란속에서 민족을 지켜 삼천리의 평화를 지켜 민족수호의 보검 마련하신 원수님

만고의 그 업적 무슨 말로 칭송하랴

그이 아닌 그 누가 이런 대용단을 내릴수 있으랴 원수님 아니시였다면 열백번도 더 전쟁의 불구름에

잠겼을 이 강토 민족은 핵참화의 불행속에 허덕이였으리

힘의 《만능》이 지배되는 이 세계에서 누구나 가지고싶어도 누구나 가질수 없는 위대한 힘을 민족의 이름으로 펼쳐주신 그이는 정의의 화신 절세의 애국자

그이가 계서 그이 마련하신 핵강국의 힘이 있어 민족의 천만년미래는 창창하노라 그 어떤 침략자도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강대성은 누리를 떨치리라

지켜준 그 은공 막강한 힘을 안겨준 그 은공 민족사는 길이길이 전해가려니 오, 다함없는 겨레의 칭송에 떠받들려 김정원수님 위대한 태양으로 빛나신다



# 인민사랑의 자욱을 따라

##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찾아서

우리는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관철을 위해 년 초부터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 있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찾았다.

평양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은 부지면적이 1만 2 800여㎡로서 생산공정이 현대화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강냉이가공식품 생산기지이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공장의 기술준비실 실장 박승걸(59살)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우리 당은 인민생활 문제를 천만가지 국가가운데서 제일국가로 내세우고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생산자들은 더 많은 강냉이가공식품을 생산하여 시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강냉이가공품이 차례지게 하시려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에 대해 들려주었다.

일찌기 아버지수령님께서 강냉이로 만든 제품에 친히 《옥쌀》이라는 이름도 달아주시며 강냉이로 여러가지 식료품을 많이 만들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셨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시에 현대적인 강냉이가공공장을 건설하여 강냉이기름, 강냉이국수, 옥쌀, 강냉이빵 그리고

강냉이튀기, 강냉이과자, 강냉이단목을 만들어 시민들과 탁아소, 유치원아이들에게 차례지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냉이가공공장을 건설하도록 하시니 여러차례에 걸쳐 공장건설과 관련한 대책적문제들을 가르쳐주시고 공장운영과 생산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공장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

와 심혈을 되새기며 우리는 생산된 제품들을 둘러보았다.

각양각색의 모양과 크기로 포장된 쌀, 국수, 빵, 과자, 단목, 튀기를 비롯한 모든 제품들은 강냉이를 원료로 만든 것들이었다. 가공품의 질에서나 포장에 있어서나 흠잡을데 없는 식품들이었다.

우리가 그득히 쌓여있는 제품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데 박승걸실장은 이렇게 말하느 것이었다.

《우리가 만든 강냉이가공품들은 맛있고 영양가가 높아 인

민들의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그날 원수님께서 국수, 옥쌀, 과자, 빵, 단목 등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강냉이가공품의 가치수도 다양하다고, 제품의 포장수준도 대단히 높아졌는데 불수록 호뭇하다고 하시면서 가공품의 위생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인민들의 기호와 식성에 맞는 질 좋은 가공품을 생산하도록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살피심을 후덥게

느끼며 우리는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았다.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이 무인화된 국수생산공정과 옥쌀생산공정, 편빵생산공정과 과자생산공정, 기름생산공정과 단목생산공정 등에서 련이어 쏟아져 나오는 강냉이가공식품들, 생산현장마다에서 한 두명의 생산자가 관리운영하는 현장은 로동이 그대로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고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공장 현대화에서 기본은 국

보시고 포장원가를 낮출데 대한 가르치심도 주시였으며 국수오리의 길기도 우리 인민의 기호와 세계적추세에 맞게 알맞추히 정하도록 해주셨습니 다. 그러시면서 국수생산공정에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 지적하시였습니다. 사실 무진화, 무균화된 국수생산공정에서 포장단계의 위생안전성문제는 전문기술인 군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것입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생산공정의 미흡한 점을 헤아리시고 즉석에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인민들에게 맛과 영양에서뿐 아니라 위생 안전성에서도 흠잡을데가 없는 질 좋은 강냉이가공품이 차례지게 하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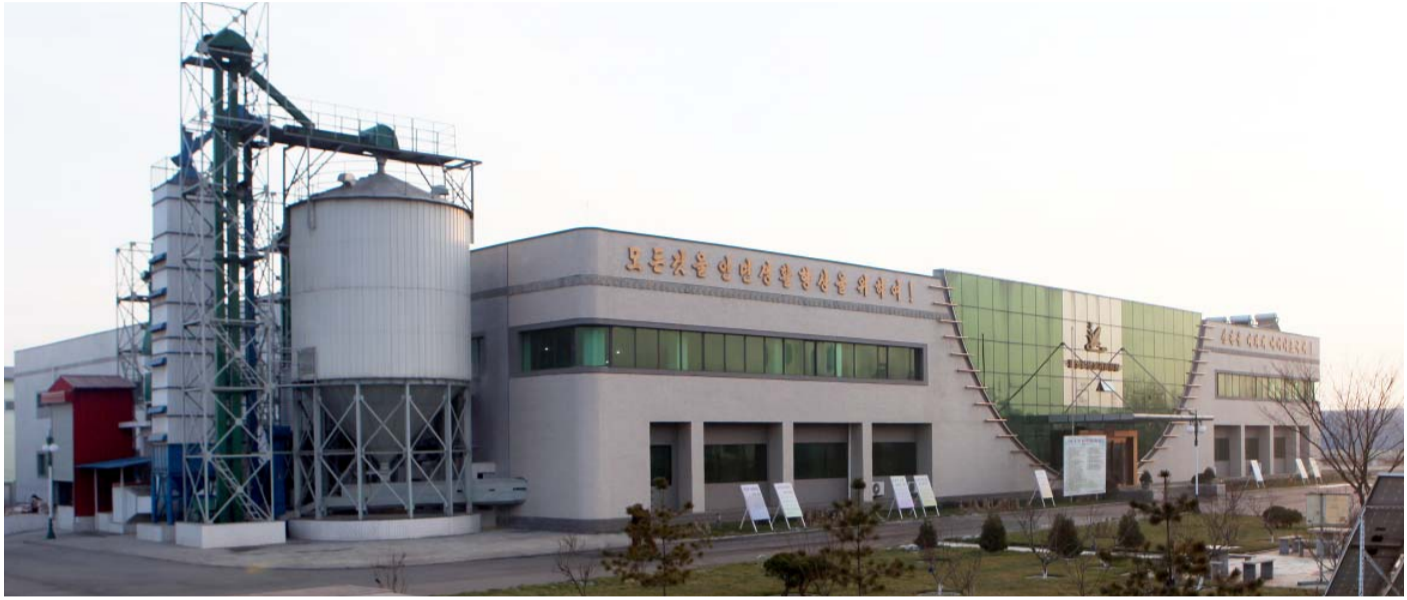
종합조종실에서 만난 공장의 책임일군인 강신철의 이야기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료보장대책을 바로세우고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짜고들 데 대한 문제로부터 제품의 위생안전성과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생산하는 모든 강냉이가공품들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이 되게 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생산과 경영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공장은 새해의 첫걸음부터 만부하의 동음 높이 울리고있었다.

물론 그 공장뿐이 아니다. 경공업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세워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경공업기지들에서 울리는 생산의 동음이 그곳을 나서는 우리의 취재길을 재촉하고있었다.

본사기자 주일봉



산화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수십여종의 설비들을 자체로 개발제작하고 60여종에 수천여점의 자동화요소들과 자재들을 자체로 보장하여 생산과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송풍 및 려과장치 등을 새롭게 제작설치하여 생산공정의 무진화, 무균화를 보장하고 있는가 하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생산, 경영, 품질, 전력관리의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한 이 공장이었다.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불리우는 노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저의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배려가 너무도 고마워 지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는 조국의 품에 안긴 후 외할아버지가 반아안은 크나큰 은정이 되새겨져 눈물을 적시곤 합니다.

따스한 이불속에 잠들다가도 문득 깨어나 생각하는것 내 이 사랑 다 아는가 장군님 사랑

내 집 앞방에도 당신의 사랑 내 집 뒤방에도 당신의 사랑 눈물이 말라버린 늙은이 몸도 고마움에 울고 읊니다 아 김정일장군이시여 사랑의 화신이시여

돌이켜보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섰던 외할아버지는 적들에게 체포되어 0.75평짜리 킴킴한 독감방에서 34년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 다.

사정없이 찬바람이 스며드는 감방에서 《숨쉬는 화석》이었던 외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궁궐같은 집과 나날이 더해만가는 육체적인 사랑과 믿음은 남녘땅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것이었습니다.

눈물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감정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헤여졌던 가

수기

# 그 사랑 못 잊 습 니 다

죽들과 만나는 판문점에서의 그날 외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 한방울 흐르지 않았습니 다. 아 니, 흐를수도 없었습니다.

모진 고문으로 부서져나간 육체, 움푹 패인 눈, 앙상히 솟은 광대뼈, 피부가 상점한 몸에 점적주사바늘을 꽂은채 시체아닌 《시체》가 되어 돌아온 외할아버지의 악화된 건강상태가 감각과 감성을 방해하고있었던것입니다.

그렇게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조국의 품에 안긴 외할아버지가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새옷을 갈아입은 그 순간부터 눈동자에 정기가 생기고 얼굴이 상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죽은자를 산자로 만들고 지옥행을 락원행으로 바꾸어놓은 기적같은 시간이 시작되었던것입니다.

참으로 외할아버지가 조국의 품에 안기여 보낸 14년간의 나날은 남조선출판물에도 실린것처럼 남에서의 43년세월에 잃었던 인간본연의 모든것을 되찾고 사람이 꿈에서조차 바랄수 없는 행복을 누려온 재생과 반복의 나날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 또 있는가를 분단선 넘어서 알았습니다. 내 언제나 잊지 않으리 장군님 사랑

조국이 무엇인지 알게 한 사랑 혁명이 무엇인지 알게 한 사랑 끝없이 아껴주고 내세워주신 그 믿음 고맙습니 다 아 김정일장군이시여 사랑의 화신이시여

민족분렬의 비극속에 묻힌 한 전사의 운명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며 기어이 데려다가 완패시켜 조국의 장한 아들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외할아버지의 심장에 박동을 주고 혈액에 피를 부여준 활력소였습니다.

지옥행 수인번호를 달았던 여원 가슴에 안겨주신 조선로동당 당원증은 정치적생명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값높은 인생증서였고 수십년세월 최고령을 차고 때없이 감행되는 뒤를기고문에 뼈까지 탈린 가는 팔목에 채워주신 금시계는 아버지의 심장에 숨결을 맞추며 신념의 한길을 걸으라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불변의 태업으로 살아 돌고도는 인생박동기였습니다.

우리 집의 1층방에도 2층방에도, 손자손녀들이 밀어주는 삼륜차를 타고 산보하던 정원에도 차고넘치며 눈물이 말라버렸던 외할아버지를 걱정과 감동으로 울고올게 한 아버지의 그 사랑은 참

으로 고귀하고 자애로운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외할아버지는 위대한 장군님을 《사랑의 화신》으로 칭송해마지 않은것입니다.

그 따뜻한 친어머니사랑이 어찌 우리 집안방에만 흘러 들었겠습니까. 장군님 다녀가신 온 나라의 거리들과 가정들에, 학교와 집집마다에 위대한 태양의 사랑이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농촌에 가 보면 손수 가마뚜껑까지 열어서 보시고 살림살이를 의논해주시던 다심한 그 손길이, 공장에 가보면 기름물은 로동자들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던 그 사랑이, 군부대들에 가보면 병실과 식당부터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따스이 돌보아주시고 춤지않게 숨통복도 두들하게 해입히도록 해주신 자애의 응성이 어찌오고 들려와 눈물을 적시는 우리 인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오늘도 장군님을 간절

랑에는 비길수 없습니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우리 장군님은 사랑의 화신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시며 인민사랑의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날마다 세상이 부러워할 복을 받아안고있으며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즐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보람





# 마식령이 주는 인생의 희열과 그

## \* 즐거운 마식령 관광길을



눈덮인 이 겨울. 공화국의 어디에서나 유행되는 하나의 부름이 있다.

《마식령으로 가자!》 2년전 새로 꾸러진 마식령스키장으로 스키를 타러 지금 누구나 관광의 길에 오르고있다.

1월 25일, 기자도 마식령스키관광의 진미를 맛보러 가는 관광일행속에 섞여 이 길에 올랐다. 풀색바탕에 하얀 눈결정이 산뜻이 날리고 스키를 타는 뺑긴의 모습을 형상한 배스에는 《마식령》이라는 글씨가 띄여져있었다.

아침 9시, 일행을 태운 배스가 고려호텔앞을 출발하였다.

《와!-》 순간 마식령으로 가는 기쁨에 겨운 관광객들의 환성이 터져올랐다. 마식령관광배스는 미래과학자거리로 지나 통일거리로 향하였다. 새해 첫날부터 문을 열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과학기술전당의 모습도 시야에 안겨왔다. 사람들은 몇해사이 그 모습을 일신한 평양의 전경에 취해 차창밖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평양시내를 벗어난 배스는 마식령을 향하여 끝도없이 달려갔다.

배스안의 소형TV에서는 《조선관광》이라는 소개편집물이 방영되고있었다.

조선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 백두산, 금강산 등 세계적인 관광명소들, 조선의 민족풍습과 개성인삼, 김치를 비롯한 민족의 향취 넘치는 이름난 특산물에 이르기까지 화면에 흘러가는 소개내용들은 려행길을 더욱 즐

겁게 해주었다.

차창밖으로는 눈덮인 조국의 산야가 계속 안겨왔다. 최근 년간 온 나라가 떨쳐나서 산림복구전투를 벌인 결과 산에 나무들이 많아진것이 눈에 띄게 알렸다.

《야! 마식령이다!-》 누군가의 환성에 차창밖을 내다보니 《마식령스키장》이라고 쓴 글발이 안겨왔다.

어딜 가나 백설천지인 마식령의 산발들과 스키주자가 한눈에 안겨오며 순간에 가슴을 부풀게 했다. 마식령의 은빛설원이 유혹하며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산골특유의 정서가 풍기는 마식령호텔안에 려장을 푼 일행은 식당에서

### 짜릿함과 상쾌함의 진미

사람들은 한시바빠 스키장으로 달려가고싶은 마음에 오후에는 벌써들 스키장으로 나갔다.

《아, 스키장에 왔으면 야 스키부터 타야지요. 기자선생도 함께 스키를 탑시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 왔다는 조명성아바이의 말이였다.

힘들지 않는가고 묻는 기자의 말에 그는 《하하, 이래봐도 내가 이곳에 세 번째로 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스키를 탈수 있을가 생각했었는데 스키는 3살 때부터 탈수 있으며 나이에 제한이 없다고 말해주는 봉사원처녀의 이야기를 듣고 용감하게 봤수다.》 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이때 한진아봉사원이 다가와 《아바이의 말씀이 옳습니다. 스키배우기

점심식사를 하였다.

사람들은 안내판에서 너도나도 마식령특산음식들인 마식령참나물김치, 신선로, 곰발통찜, 자라탕, 새끼돼지구이 등을 주문했다.

《정말 맛있구만. 내 구미에 딱 맞아.》

《이 마식령더덕구이가 제일이에요. 갈 때 꼭 사가지고 가자요.》

장천남새전 문협동농장에서 왔다는 최동민, 리향화신혼부부가 속삭이는 소리였다.

기자도 마식령산나물비빔밥과 송이버섯구이를 신청했다. 마식령의 맑은 물과 청신한 공기속에서 자란 산나물이며 서인지 그 맛이 매우 좋았다.

는 로라스케트배우기보다 더 쉽답니다. 빠르면 하루만에, 늦어서 한주일이면 능히 배울수 있습니다.》 고 설명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스키신을 신었다. 신발뒤축에서 《딱》 하고 나는 고정쇠맛물리는 소리는 누구나 스키선수가 된듯 한 느낌을 더해 주었다.

스키장으로 나서니 눈부신 설원의 광만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흥성거리려는 모습이 가관이였다. 겨울정취를 느끼기에 스키장보다 좋은 곳은 없다 더니 정말 그러했다. 스키를 타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행복하기만 하였다.

사람들이 스키주로를 누비는 모습을 보며 기자는 내심 경사가 급한 고

급주로는 못 타도 초급주 로야 못 타겠는가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보기와는 사뭇 달랐다. 평지에서의 훈련도 하지 않고 주로부터 타겠다는 생각은 욕망에 불과하였다. 초급주로라 하지만 초보인 기자에게는 지쳐내리는 속도가 만만치 않았고 곧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끝내 통채로 넘어지고 야말았다.

《해해해-》 옆에서 스키를 타던 조무래기들이 웃음을 터뜨린다.

《기술봉사를 받으시면 인차 요령이 생깁니다.》 손잡이 일으켜주는 고마운 사람의 모습을 올려다보니 《스키교원 김정혁》이라고 쓴 카드가 눈에 안겨왔다. 여기에 스키학교가 있다더니 나와 같은 초보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마식령의 밤

마식령에 밤이 왔다. 깊은 산속에 통나무로 형성한 아담한 집에서 목가적인 정서를 느끼며 밤을 보내는 것 또한 마식령관광의 멋이었다.

침실밖을 내다보면 큰 창문유리로 은빛폭포마냥 산발들을 뒤덮은 마식령의 스키주로들이 밤하늘을 비추주는 야경과 어울려 낮과는 또다른 정서를 안겨주었다. 무지개빛 줄로 지치며 야간스키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온도와 습도, 기압과 바람상태를 비롯한 스키주로지구의 기후상태가 현 시되는 대형전판관이 다

《감사합니다. 숙련이 되면 절로 탈출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기자는 스키교원의 차근차근한 설명을 들으며 스키를 배우기 시작했다. 역시 교육이 중요하였다. 한시간후에는 초급주로를 타게 되었고 두시간후에는 드디어 초중급주로를 타게 되었다.

맨 처음 스키주로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두려움섞인 짜릿함은 어릴적 꿈속에서 새처럼 절벽밑을 미끄러져 날아갈 때 느꼈던 바로 그런 기분이였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구라할것없이 표정이 눈처럼 밝았다. 겁에 질린 초보자의 표정 한켠에도 눈만큼 환한 미소가 배어 있었다. 온통 하얀 눈가루를 눈동자에 가득 담으며 미끄러져 내려갈 때의 짜릿함과 상쾌함때문이라. 이런 멋에 스키를 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인다. 《마식령에서의 첫날밤인데 그냥 침실안에서만 보낼수가 없지요. 기자선생, 함께 잡시다.》

한 침실에 든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배정희 선생이 나를 당구장으로 이끌었다. 그와 함께 당구를 하고 난 후 화면반주음악장으로 가서 노래도 불렀다. 무도장이며 민속오락장, 탁구장 등 호텔의 곳곳마다 마식령의 밤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흥성거렸다.

《정말 이 밤은 즐겁구만요. 지난해에 교원, 연구사 부부라고 미래과

# 짜릿한 감동

## 따라 \*

학자거리의 고층살림집을 받아안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식령에 와서 유쾌한 나날을 보낼

니다.》 이렇게 말하는 배정희 선생의 눈가는 축축히 젖어있었다.

### 대화봉에 올라

1월 26일 오전, 마식령에서의 두번째 날에 기자는 대화봉으로 오르기로 했다.

해발 1300여m나 되는 대화봉의 경치가 으뜸이 라는데 거기에 올라가보지 않고서야 마식령에 와 보았다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우리 일행을 태운 10번 삭도가 대화봉으로 출발하였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타고 오르시였던 삭도에 앉아 스키장정점에 오르느라니 생각도 깊어졌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리용할 모든 주로들을 다 보시켰다고 하시면서 10번삭도만이 아니라 36번, 46번, 53번 등 여러개의 삭도를 타시었다고 한다.

삭도를 타고 발밑에 내려다보이는 마식령스키장의 경치가 볼만 하였다.

인간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엄혹한 자연이였던 마식령이 이처럼 변모되리라고는 어찌 알았으랴.

오늘 마식령은 최상의 문명세계를 펼쳐는 호화로운 령으로 되었다. 참나무, 피나무, 박달나무, 소나무들이 울창하여 청신한 기운이 감돌고 고사리, 고비, 머루, 다래, 오미자, 삼주 등 산나물들과 산과일들이 많다고만 알려져있던 마식령에서 눈다짐차들과 눈오토바이들의 동음이 경쾌하게 울리고 눈노에 서 뿜어져나오는 눈갈기가 신비한 풍경을 펼쳐 놓고있다.

《우리 마식령에는 전 설들이 많이 깃들어있답니다. 대화봉에 깃든 이런 전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옛날 오누이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식량을 얻으러 멀리 떠난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떠난 때로부터 오누이는 돌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으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의 대화봉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봉우리를 쌓도록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못했고 사람 한명도 지나가지조차 않았답니다. 바로 이런 인적드문

힘한 마식령에 우리 원수님께서 오시였고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되었습니다.》

우리 일행과 함께 삭도를 탄 안내원 김명철이 감격에 겨워 하는 말이였다. 기자의 가슴도 뭉클해졌다.

드디어 대화봉에 다달았다. 신선한 공기가 폐부에 스며드는 대화봉에서 앞을 보니 동해의 푸른 바다가 안겨오고 해돋이순간에 이 정점에 다

시 오르고싶은 욕망이 가슴을 찢었다. 대화봉정점에서 눈이 내릴 때 기슭에서는 비가 내린다는 마식령, 내려다보니 언제 어찌때든지 눈포를 쏠수 있게 준비되어있는 4개의 호수가 선명하게 보였다.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대화봉휴식장에서 사람들은 혼자 와도 먼 엄혹한 자연이였던 마식령이 이처럼 변모되리라고는 어찌 알았으랴. 오늘 마식령은 최상의 문명세계를 펼쳐는 호화로운 령으로 되었다. 참나무, 피나무, 박달나무, 소나무들이 울창하여 청신한 기운이 감돌고 고사리, 고비, 머루, 다래, 오미자, 삼주 등 산나물들과 산과일들이 많다고만 알려져있던 마식령에서 눈다짐차들과 눈오토바이들의 동음이 경쾌하게 울리고 눈노에 서 뿜어져나오는 눈갈기가 신비한 풍경을 펼쳐 놓고있다.

오후에는 스케트장에서 속도빙상스케트며 휘거스케트 등 여러가지 스케트를 타 보았다.

웃음발을 날리며 스케트를 타다가 평양의국어 대학 학생 리창화가 넘어지는바람에 얼굴이 조금 붉었다.

1분도 안되어 구급소의 간호원이 달려와 큰일이라도 난듯이 상처자리를 소독한다. 약을 바른다음 《응급처치》를 했다.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사정》하는데도 간호원은 막무가내였다.

《우리 마식령에 왔다 상처를 남기고가면 어찌겠습니까? 스키장에 온 사람들에게 최상의 의료봉사를 해주는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거 정말, 사실 장난삼아 우정 넘어진건데...》

《하하하-》 웃음이 터져올랐건만 무심히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 마식령의 모든것이 다 훌륭하다는 말밖에 할수가 없었다. (5면으로 계속)





# 천리마, 만리마의 기상으로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새로 주력거리를 형성하고 대규모발전소를 건설하며 산업기지들의 관리운영과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와 국산화를 실현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첨단들과 같은 혁신적인 성과와 발전이 이루어지고있는것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있다.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여섯달 동안에 완공되고 평양의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1년도 안되는 기간에 농장 도시로 일신하였다. 평양메기공장에서는 그 전에 비해 생산이 2배로 올랐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자체의 생물농약연구에서 성공하고 생산의 공업화도대를 갖추어 생물기술연구 및 응용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분산형조종체계개발과 고온가스연소기술 응용장치들과 원료를 국산화하는데서 성공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는 다수확품종의 알곡 및 남새종자를 육성하고 재배방법을 완성하였다. 지난해 동해어장에서는 만선의 풍어기가 연속 휘날렸다.

말 그대로 비약적인 현실이다.

눈부시게 발전하고 변모되는 오늘의 현실을 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석으로 강산이 변하는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라고 하시였다.

천리마라는 말은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와 60년대를 이으며 공화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조선을 상징하는 시대어였다. 몸체에 날개가 돋쳐 하루에 천리를 가는 전설의 천리마는 곧 비약을 상징한다.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내며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던 시기 모든 부문에서 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애국의 호소에 강건제강소(당시) 생산자들이 년에서 12만의 강편을 생산하는것으로 대고조의 첫봉화를 든것이 천리마운동의 발단이 되었다. 그에 화답하여 전민이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려자!》는 구호를 들었고 금속공업만이 아닌 농업, 수산, 건설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료원의 불길로 타버리어 창조와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이 일어났다. 시공간적으로 모던것이 천리마와 결부되었다. 《천리마선구자의 노래》와 같은 가요가 시대의 메아리로 울리고 잡지 《천리마》가 발행되었으며 기록영화 《천리마》가 나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평양의 만수대 언덕에는 천리마동상이 건립되었다. 새로 건설된 거리에도 천리마라는 이름이 붙고 갖 생산된 트럭포토도 《천리마》호로

명명되었다. 세상사람들은 조선을 가리켜 《천리마의 나라》, 《천리마조선》이라고 불렀다. 세계 축구무대에서 조선팀이 강팀을 눌렀을 때 《천리마 조선의 축구신화》라는 절찬이 나온것도 그때의 일이다.

공화국에서 남들은 웅근한세기 혹은 몇세기를 거쳐 한 공업화를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실현할수 있는것은 남이 한걸음 걸으면 열걸음, 백걸음을 달려야 한다고 하시며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도록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비범한 령도와 전민의 양양된 애국충정의 자랑스런 결실이었다.

천리마의 정신, 천리마의 기백으로 공화국은 주체의 기치높이 자주, 자립, 자위의 한길로 줄기차게 달려있으며 위력하고 존엄높은 주체강국을 건설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한것이다.

오늘 공화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새로운 천리마, 만리마의 기상으로 비약하고 달려가고있다.

이 땅우에 하루빨리 인민들의 리상과 꿈이 현실화된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웅대한 구상과 확고한 결심,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비약, 대변혁이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최대의 속도로 최상의 문명을 창조하여 인민들이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뜻과 의지가 현실로 이루어지고있다.

창조와 건설에서 최대의 속도, 최상의 질과 수준은 그이께서 요구하시는 시간이고 높이이다.

지난해 큰물피해를 입은 라선시북구가 한창이던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자들을 보시고 말그대로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벌려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그리고 살림집구역과 주변지대정리도 최상의 수준에서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하여 건설자들은 불과 30여일동안에 피해복구를 끝내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하여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하나하나의 건축물, 창조물들은 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이 구현된 문명의 높이와 발전속도를 보여주는 창조물들이고 재부름이다.

인민의 리상과 꿈이 실현된 휘황찬란한 래일을 앞당기는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며 조선의 천리마, 만리마는 줄기차게 달려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 조형예술적이로 완벽한 건축물

평양의 명당자리에 과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으로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은 건축미가 독특하고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한 걸작품이다.

현대적인 건축기술이 집약적으로 반영된 과학기술전당은 지난 시기의 건축방식과 달리 새롭게 건설되었다. 펜촉모양의 탑만 보아도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라는 느낌이 절로 들게 하는 과학기술전당은 야외학습터들과 분수공원, 꽃무늬를 형상한 야외전시장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건축물의 조형예술적미를 한껏 살리고있다.

건물의 지붕을 유리로 씌우고 자연채광을 최대한 받을수 있게 1층부터 4층까지의 중심에 원형관통홀을 만든 랭난방보장체계, 풍아나게 하였으며 실내

전시장의 휴식홀도 라선형계단을 따라 올라가게 특색있게 만들어 놓았다.

원형홀을 중심으로 설계된 휴식홀에는 의자들을 배치하여 사람들이 휴식하면서 탁 트워진 넓은 공간을 부감하게 되어있으며 원형홀의 가운데에는 구형레드전광판을 놓아 사방에서 전광판을 바라보는데 불편없이 만들어 놓았다.

과학기술전당의 공간들마다에 잡지매대, 청량음료매대, 휴식홀들도 조화롭게 꾸며놓고 구색에 맞게 배치함으로써 조잡한 감이 없고 바닥에는 연한색의 타일을 붙이고 천정의 조명도 특색있게 설치하여 하나의 예술작품을 방불케 한다.

자연채광에 의한 실내온도를 보장할수 있게 되어있고 지열에 의한 랭난방보장체계, 풍력과 태양에너지 등

자연에너지를 리용한 전력생산체계를 도입하고 건물판리의 지능화를 실현한 에너지 절약형건축물, 특색건축물로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은 건축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 있어서 흠잡을데가 없다.

건물내외부의 특색환경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특색건축의 상징이며 백년후수피해도 견딜수 있게 섬들레를 따라 수km의 호안이 새로 조성되었으며 10여리에 달하는 구획도로와 충성의 다리와 숲섬이 연결된 3개의 로션의 새로운 인입다리도 현대적으로 건설되었다.

실로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이야말로 건축미학적으로나 조형예술적으로 손색이 없는 국보적인 건축물, 세계적인 건축물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본사기자 류현철

(4면에서 계속)

## 눈에 대한 생각

1월 27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밤새 스키장에 눈이 내렸다.

자연의 정갈하고 풍만한 존재인 눈부신 은세계, 온 강산을 덮은 백설의 아름다움, 유리처럼 맑은 하늘, 마식령을 찾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리진 듯싶었다.

광활한 눈바다의 정서를 느끼며 떠올린 생각을 몇자 적어보았다.

수다스러운 미인파도 같이 잠깐 내려도 소란스러운 비와는 달리 눈은 있어도 없는것 같은 착한 새색시처럼 소리없이 내렸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다. 회오리치는 세찬 바람과 함께 하늘 한복판에 눈기둥을 말아 세울 때엔 사나이다운 기개와

힘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눈처럼 깨끗한것도 없을상싶다. 또한 눈처럼 공정한것도 없을것 같다. 비는 아무리 쏟아져도 높은데는 한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깊고 낮은 곳으로 몰리지만 눈은 깊은데 한뼘이면 높은데도 한뼘이다. 그래서 눈은 들쭉날쭉하고 얼력덜력한 자연의 그 모든 형태를 드러내 보여준다. 그러나 인민을 위한 군인건설자들의 뜨거운 마음은 마식령의 스키주로 단 한치도 들쭉날쭉하거나 울퉁불퉁한 곳이 없다. 마식령의 하얀 눈처럼, 마식령의 푸른 하늘처럼 깨끗한 군인건설자들의 마음이 깃든 마식령의 스키주주이다.

짧은 관광일정이었지만 하나같이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들이었다.

옥류관 료리사 남윤주,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생 허혁과 평양단고기집에서 함께 일한다는 원주철, 김명옥부부며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서 온 림영만, 리용빈, 평양화학발전련합기업소에서 온 리광영, 흥혜심, 평양갈림길종합진료소 의사 김춘복선생, 평양종합인쇄공장의 노동자들인 리혜순, 오경수, 김홍숙, 홍창만...

그들의 직업은 각이하다. 노동자도 있고 농민도

있으며 지식인도 있다. 그러나 마식령을 찾은 그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그곳에서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하나와 같았다.

문수물놀이장의 물미끄럼대를 타면서 꿈과 같은 현실에 웃음소리 높았던 그들이었다. 미림승마구락부에서 말고삐를 손에 쥐며 신비한 세계에서 웃음짓던 그들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에 떠받들려 나날이 더 높은 곳으로 성큼성큼 올라가고있는것이 행복하고 송구하여 감사의 정에 눈물을 쏟았던 그들이 오늘은 마식령스키장에서 최상의 문명을 누리였다.

평양사람들만이 아니라 원산, 함흥, 남포 그리고 머나먼 섬마을에서도 온 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마식령스키장을 찾는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있다.

스키를 가리켜 고급한 운동, 사치한 운동종목이라고 말한다. 스키장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스키타기에 필요한 장구류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싼데로 부터 생긴 자연스러운 편견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이러한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평범한 근로인민들이다.

스키를 타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스키는 인생을 개변시킨다고 말하기도 한다. 허나 마식령스키장은 몇몇 사람의 인생을 개변시키는 유희장이 아니다.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평범한 근로인민모

두를 즐겁게 해주는 인민의 스키장이다.

외국의 한 인터넷방송에 오른 글이 생각났다.

《세계가 마식령스키장을 통하여 보는것은 조선에서 건설하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실체이다. 예로부터 산세가 험해 말도 쉬여넘었다는 마식령의 천험의 령이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는 문명의 상상봉으로 꾸러지고 《마식령 스키바람》이라는 새로운 시대에까지 생겨났다. 이 스키바람을 안아오신분은 김정은령도자이다.》

환승우에서는 모든것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마식령스키장에서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새겨안았다.

이행할 태운 마식령관 광빠스는 드디어 마식령을 떠났다.

《잘 있오라! 마식령아-》

《다시 만나자! 마식령아-》

그들의 목소리는 마식령골짜기에 오래오래 메아리쳤다.

본사기자 김춘경

## 《어느 나라 도시의 건물들같은가?》 - 국제 사회계의 반향 -

《우리의 웹사이트에 조선의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찍은 수십장의 사진들을 《어느 나라 도시의 건물들같은가?》라는 물음과 함께 실었다. 이 물음에 추천명의 사람들이 중국의 홍콩이나 상해, 마카오의 건물이라고 대답하였다.

조선의 건물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그후 내가 얼마전 조선의 수도 평양에 일떠선 건물들이라는 해설글을 올리자 모든 가입자들이 《상상을 초월한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홀하다.》고 하면서 저마다 놀라움과 경탄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브라질의 빠트리아라파신문사 사장이 최근에 한 체험담의 일부이다.

우루과이 3월26일운동지도부인사도 평양의 화려한 전경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보고 흥분을 금할수 없다, 발전하는 현대적

건축물들은 약동하는 조선의 새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국가의 헤택속에 수많은 평범한 교민, 연구자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궁핍같은 새 집들에 입사하였다. 이는 소식에 접한 네팔정부 부수상 겸 녀성, 어린이 및 사회부리상은 조선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수도 없고 믿기도 힘든 희한한 현실들이런 것이 펼쳐지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로씨야신문 《로씨스카야 가제파》는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사용하고있는 인터넷에 미래과학자거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올라 대인기를 끌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미래형의 독특한 건물들이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는 문명개화기가 더욱 활짝 꽃피는 시대에 평양에 펼쳐진 새롭고 특색있는 거리이다.

평양은 이러한 건축물들로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

키고있다. 서방언론들은 조선의 훌륭한 모든것을 무시하고 조선에 대한 거짓선전을 끊임없이 고안해내고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만일 자본주의나라 사람들이 조선인민이 어떻게 살고있는가를 정확히 보고 알게 된다면 그 나라 정부는 다음날로 전복될것이다.

국제사회계는 조선에서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만이 아닌 전국도처에 육아원, 애육원과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소년궁전들이 훌륭히 일떠서거나 개건되고있다고 하면서 김정은령도자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이 현실로 꽃피는 조선의 래일은 밝고 창창하다고 일치하게 강조하고있다.

1년을 10년맞잡이로 비약하며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는 공화국의 기적과 변혁을 두고 리치는 국제사회계의 찬탄의 목소리는 뜻깊은 울해에 더 높이 울려나올것이다.

본사기자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 공 동 결 의 문

새해 2016년은 우리 민족을  
돌로 갈라놓고 70여년간 핵위  
협을 가해오며 자주통일을 가  
로막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  
력들과의 대결전에서 장엄한  
패승을 안아올 위대한 승리의  
해이다.

장장 70여년동안 지속되고있  
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력  
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  
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  
이며 강렬한 지향이다.

이러한 때에 북의 수소탄시  
험은 이 땅에서 미국이 일으킬  
핵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애  
국, 애족, 애민의 결단이며 삼  
천리강토와 온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우리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는 력  
사적장거로서 새해의 통일진  
군길에 나선 온 겨레에게 커  
다란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  
고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존엄과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  
고 필승의 기상과 위용이 만방  
에 파시되어 해내외의 온 겨레  
가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국통일을 위한 새해의 진군  
길에 힘차게 떨쳐나선 격동적  
인 시기에 조국통일범민족련  
합 제16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올해에 《내외반통  
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  
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  
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  
국통일운동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

어나갈 뜨거운 통일애국의 의  
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범민련은 민족내부문제, 통  
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  
격하고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  
게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  
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노력해나  
갈것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  
내지 않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도, 자주  
통일도 이룩할수 없으며 우리  
민족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  
날수 없다.

범민련은 외세의 로골적인  
간섭과 전횡, 교활한 민족리  
간책동을 단호히 배격하며 해  
내외의 온 겨레를 외세반대, 민  
족자주를 위한 투쟁으로 총결  
기시켜나갈것이다.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행위  
를 저지시키며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리익  
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를  
철저히 배격해나갈것이다.

일분과의 굴욕적인 《합의》  
로 성노예범죄를 덮어버  
리는것과 같은 추악한 매국역  
적행위를 단죄규탄하는 투쟁  
에 온 겨레를 불러일으켜나갈  
것이다.

2. 범민련은 외세와의 합동군  
사연습을 비롯한 온갖 대결책동  
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

게 벌려나갈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해  
마다 벌려놓고있는 합동군사  
연습은 군사적긴장을 격화시  
키고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  
는 주되는 화근이다.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 조국통일을  
바라는 해내외의 온 겨레를  
전쟁반대,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며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이 땅에서 항구적이며 공고  
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반  
전평화운동을 적극 벌려나갈  
것이다.

군사적충돌을 불러올수 있  
는 험악한 비방중상과 심리  
모략방승을 저지시키고 동족  
을 반대하는 온갖 모략과 도  
발책동에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다.

3. 범민련은 민족공동의 합의  
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기초  
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  
관계개선을 적극 추동해나갈  
것이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  
선언, 10.4선언은 민족의 총의  
가 집대성되어있으며 이미 실  
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뚜  
렷이 확증된 민족공동의 통일  
대강이며 자주통일의 리정표  
이다.

범민련은 민족공동의 합의

들을 조국통일의 대강으로 튼  
튼히 틀어쥐고 민족의 대단합  
과 통일운동을 과감히 전개해  
나갈것이다.

겨레의 가슴마다에 우리 민  
족끼리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  
고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모든  
활동을 재개하고 더욱 활성화  
시켜나갈것이다.

범민련은 북남합의들을 존  
중하고 리행해나가는 해내  
외의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  
과 굳게 손잡고 래왕과 접촉,  
협상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자  
주통일의 새시대를 함께 열어  
나갈것이다.

특히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6돐, 10.4선언발표 9돐  
을 맞으며 해내외의 각계층과  
함께 전민족적인 통일회합들  
과 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북남선언리행분위기를 고조시  
켜나갈것이다.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부정  
하고 그 리행에 장애를 조성  
하는 온갖 책동들과 《체제대  
결》과 《제도통일》을 추구  
하는데 대해 단호히 반격해나  
갈것이다.

4. 범민련은 조국통일운동  
《리적》과 《종북》으로 몰아  
불법시하는 반통일, 반민족적공  
안탄압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나  
갈것이다.

그 어떤 정권도 외세에 의해

분렬된 나라와 민족을 자주적  
으로 통일하려는 정당한 통일  
운동을 가로막아나설 권한이  
나 자격은 없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  
탄압은 정권유지와 수구세력  
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  
력사적인 폭거이다.

공안탄압을 휘두르면서 북  
남관계개선을 바란다는것은  
외세를 끌어들이 이 땅의 평  
화를 실현해보겠다는것과 똑  
같은 망상이며 궤변이다.

우리는 각계층 통일애국세  
력과 힘을 합쳐 반통일세력의  
죄악과 반민족적폭거를 폭로  
하고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통일의 정당성과 절박성  
을 널리 알려나갈것이다.

5. 범민련조직을 더욱 넓게 튼  
튼히 강화해나갈것이다.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의  
결정적인 힘은 우리 민족끼리  
의 대단합에 있다.

범민련은 조국통일의 그날  
까지 3자련대의 기발을 억세  
게 틀어쥐고 민족자주통일운  
동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평양, 서울, 도쿄  
2016년 1월 28일

## 1월이 보여준 북과 남의 미래상

1월이 지나간다.

장쾌한 수소탄폭음으로 새해 진  
군길의 서막을 올린 공화국의 1월  
은 청년강국의 위용과 밝은 미래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한 자랑스러운  
달이기도 하다.

1월 17일 공화국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일흔  
돐을 경축하는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백두산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강성국가의 억센 기  
동감들로 자라난 공화국청년들의  
대축전이였다.

청년, 그 부름은 공화국에서 인  
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어디에서나  
들수 있는 궁지의 대명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불  
리우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속도전청  
년돌격대, 청년영웅도로, 《조선  
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  
청년광산, 청년분조...

청년문제를 민족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 국가중의  
국사로 내세운 공화국에서 청년이  
란 부름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  
국의 존엄과 함께 청년강국이라  
는 새로운 시대로 더욱 빛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청년들  
이 사회의 우환거리, 범죄자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청년죄국, 청  
년망국의 개탄소리가 어지럽게 울  
리고있는 오늘 공화국의 청년들은  
자랑과 영예, 미래라는 창창한 부  
름으로 불러우고있다.

부패한 사상문화에 지든 다른 나  
라의 청년들이 범죄와 타락의 진창  
에서 헤매일 때 공화국의 청년들은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는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로, 우주과학기술,  
핵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점령  
하는 선봉대로 자라나고있다.

인간리성이 증발되고 동물적본

성이 변이증식된 자본주의나라에  
서 청년들이 오직 돈을 위해 부모  
형제를 살해하고 자기의 자식도 서  
슴없이 해칠 때 공화국의 청년들은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치녀  
어머니》가 되고 동지를 위해 서슴  
없이 자기를 바치는 아름다운 이야  
기의 주인공으로 되고있다.

강자생존, 약자무존의 약육강식  
이 횡행하고 돈이 인간의 가치와  
존재를 규정하는 황금만능이 지배  
하는 오늘의 지구상에서 눈을 씻  
고 찾아보아도 볼수 없는 회한한  
현실이다.

참으로 공화국의 청년운동이 걸  
어온 70년을 경축한 1월의 대축전  
에서 세계는 청년들의 힘찬 발걸  
음으로 비약하는 2016년의 공화국  
을 보았으며 더욱 젊고 더욱 약동  
하는 청년강국의 래일을 확신하게  
되었다.

함께 맞이한 2016년이지만 조선  
반도의 남쪽에서는 새해의 첫달부  
터 한숨과 절망, 고통과 울분의 침  
통한 소리만 울리고있다.

《이 사회에 청년은 없다. 우리  
사회에서 새 세대 젊은이들의 어깨  
에 민족의 장래가 걸려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없다. 진취성과 매기  
라는 젊음이 가지는 유일한 특성을  
잃고 곪혀가고있는 청년들의 모  
습에서 우리는 이 사회의 완벽한  
축소판을 본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잡지에 실린  
이 글은 남조선청년들의 불우한 모  
습, 암울한 현실, 참담한 미래에  
대한 평이다.

《바늘구멍만 한 청년취업의 문  
을헤는 더 좁아진다.》, 《청년실  
업은 늘고 전세값은 뛰고》, 《집  
나간 청소년 방향》...

들리는 소리마다 비판이고 보이  
는 현실마다 눈물이다.

반인민적정책으로 미래가 없는

청년들이 사랑도, 결혼도, 출산도  
지어 인간의 초보적인 삶의 권리까  
지 포기하는 《3포세대》, 《5포세  
대》, 《샴포세대》로 전락되고있  
는것이 남조선의 청년실태이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길가  
헤매이는 청년들, 《대학졸업증이  
곧 실업증서》라는 말과 같이 자  
격증을 쥐고도 직업을 얻을수 없  
는 대학졸업생들, 80%이상 등록  
금과 학비를 벌기 위해 부업을 해  
야만 하는 대학생들...

오죽하면 돈을 위해 쫓겨온 청춘  
들이 자기의 몸을 인체실험대상으  
로 바치겠는가.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피라는 호소에  
《중동으로 가라.》는 황당한 대답  
을 주었으며 《로동계약》으로 불  
리우는 《개혁안》들을 조작하여  
재벌들의 돈주머니만 불리워주려  
고 한다.

최근 남조선의 한 연구진이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발  
표한데 의하면 10명중 8명이 《사  
회가 너무도 불평등하다.》고 호소  
하였다고 한다.

《청년실신상태》, 이 한마디에  
남조선청년들의 처지가 집약되어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 이 한마  
디에 빈부격차로 피눈물을 삼키는  
남조선청년들의 비참함이 담겨져  
있다.

《최대한으로 내세우고 최대한  
으로 사랑하라!》는 고귀한 청년  
관이 현실로 꽃피 청년들을 청년  
강국의 주인공들로 내세우는 공화  
국과는 너무도 판이한 남조선의 현  
실이다.

청년강국과 《청년실신상태》,  
1월에 비끼 북과 남의 대조적인 미  
래상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반입한 때  
로부터 58년이 되었다. 1958년 1월 29일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반입한 사실  
은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킨 핵진범  
인으로서의 미국의 죄악을 날날이 고발  
하고있다.

미국은 1957년 2월 12일 남조선에 핵무  
기를 배치할것을 남조선당국과 모의하고  
그해 6월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제  
75차회의에서 신행무기반입을 금지  
한 정전협정 제13항 2목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그후 7월 15일 남조선강점 미군이  
《핵무장화에 착수》한다는것을 공  
공연히 선언한 미국은 1958년 1월  
29일 남조선에 핵무기를 반입하였다  
는것을 공식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미군사령부 보도과장은 기자회견  
에서 미군부대들이 원자포와 핵무  
기 《오네스트존》을 보유하고있다  
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며칠후인 2월 3일 미국은 의  
정부에서 280mm원자포와 《오네스트  
존》 핵무기를 실물공개하였으며 5월  
1일에는 원자포발사시험까지 진행하  
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국은 1950년대말에 미공군 588전  
술유도탄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  
이고 미군 제4유도탄사령부를 신설하  
였으며 1960년대에는 원자사단을 보  
다 현대적으로 개편하고 《나이크  
허클레스》, 《호크》 유도탄을 비롯  
하여 각종 원자 및 유도무기들을 반  
입하였다.

미국은 비핵국가와 지역에 핵무  
기를 반입할수 없게 되어있는 핵  
무기전파방지조약이 나온 이후에  
도 그를 란폭하게 위반하고 남조  
선에 155mm폭사포용핵포탄과 각종 핵  
미사일, 전투폭격기적재용핵포탄들을  
끌어들였으며 지어 《20세기 악마  
의 무기》로 알려진 중성자탄과 《퍼  
싱-2》 중거리핵미사일까지 남조선에  
반입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 끌어들인 핵무기수  
는 1970년대에는 1 000여개를 넘어섰고  
1990년대에는 1 720여개에 달하였으며  
배비밀도에서 세계최대로 되었다.

이로 하여 남조선은 미국의 각종 핵미

싸일과 핵폭탄, 핵운반수단들이 짝 들어  
찬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 핵화약고로  
전변되었다.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체계적으  
로 끌어들이는 한편 남조선과 그 주변에  
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종 핵전쟁연습  
을 끊임없이 벌리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켜왔다.

오늘에 이르는 전 기간 미국  
은 《대량보복계획》,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27》, 《작전  
계획 5029》, 《작전계획 5030》,  
《작전계획 5012》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핵전쟁계획들을 작성하고  
그것들을 《팀 스피리트》, 《키 리  
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등 각종 명칭의 핵전쟁연  
습들에 적용하여 끊임없이 런마시  
켜왔다.

미국은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  
서》에서 공화국을 최우선적인 핵공  
격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오바  
마행정부는 《핵무기없는 세계》를  
떠들면서도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  
상으로 재지정하였다.

2009년 10월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41차 년례안보협의회에서 《핵확장  
억제력제공》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입의 순간에 북침핵선제공격을 가  
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만들었다.

최근에도 미국은 철면피하게도  
《북핵대응》이라는 미명하에 조선  
반도주변에 핵잠수함을 비롯한 3대  
핵타격수단들을 끌어들이면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있다.

역사와 현실은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킨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  
이며 핵전쟁위험은 남에서 북으로  
오고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립증해주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을 가해자인 미국  
이 저들의 핵범죄는 당반우에 올려놓고  
그 누구의 《핵위협》을 떠드는것이야말로  
로 파렴치성의 극치이다.

세기를 이어오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  
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며 핵위기  
를 증대시킨 미국의 정체는 그 무엇으로  
써도 가리울수 없다.

본사기자 주광일

## 핵위협은 장본인은 미국



# 조선반도 긴장 격화를 몰아오는 근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다.

외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며 동족을 반대하고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현 남조선집권세력의 대결정책은 북남관계과국과 조선반도 긴장 격화를 몰아오는 근원이다.

지난 한해만 놓고 보아도 남조선보수당국은 광란적인 반공화국전쟁소동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가 아니라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였다.

조국해방 일흔돌이 되는 지난해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특히 공화국은 년초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토론회를 열어나갈 것을 뜨겁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소동과 《인권》모략소동을 악랄하게 벌리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홍수통일》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며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체제대결책동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렸다. 이런 흉악한 기도는 날과 달을 이으며 벌어진 북침전쟁도발소동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남조선보수당국은 공

화국의 애국애족의 호소에 정면도전하여 《남조선—미국연합체제》가 존재하는 한 《훈련은 계속될 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년례》와 《방어》의 간판밑에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해나섰다. 《작전계획 5027》에 따라 《평양점령》, 《선제타격》을 노리고 감행된 이 전쟁연습은 《방어》가 아니라 위협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실증되었다.

년초부터 시작된 북침전쟁연습은 《맥스 썬더》 훈련, 대잠수함작전훈련, 연합잠수함훈련, 《을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 연평도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 등으로 끊임없이 강행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조국해방 일흔돌이 되는 지난해에 북남대결은 더욱 격화되고 이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기운만이 감돌았다.

남조선보수당국의 북침전쟁열, 동족대결광기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은 지난해 8월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 따른 공동보도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국과 야합하여 그 무슨 《2015 통합화력격멸훈련》이라는 극히 도발적인 전쟁불장난을 역대 최대규모로 벌여놓은 것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더우기

연습은 남조선집권자

까지 이곳에 나타나 북침전쟁의 화약내를 더욱 질게 만든 것이다.

올해에 들어서도 남조선보수당국은 새해벽두부터 전쟁광기를 미친듯이 부러대고 있다.

지난 1월 1일 서해열점 지역인 백령도를 찾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 자가 《목의 가시》니, 《확고한 대비태세》니, 《철저한 대응》이니 뭐니 하며 떠들었는가 하면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이라는 자들도 목에 피대를 세우고 《전투능력구비》니, 《즉각적이며 단호한 응징》이니 하며 전쟁열기를 고취하였다.

어디 이뿐인가.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간절히 기원하던 새해 첫날 남조선호전광들은 중동부전선에서 그 누구의 화력도발을 가상한 포사격훈련을 광란적으로 벌여놓고 포탄 수십여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작했다.

지난해 8월 사태는 북남사이의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전쟁의 불씨로 되고 그것이 전면전으로 번져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인내성있게 노력하는 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 그러나 침략자, 도발자들이 조금이라도 공화국을 건드리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의

국대결소동에 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조선보수집권세력들은 《〈천안호침몰사건〉》, 《7.7전산대란》, 《농협전산망마비사건》, 《3.20해킹사건》, 《GPS전과교란사건》, 《무인기사건》 등 각종 비정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해결을 덮어놓고 동족과 련결시키고 동족대결을 격화시켜왔다.

그러나 매년 《북소행실》의 허구성이 드러나 개교망신만 당하였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해킹사건들에 대해서도 남조선의 인터넷전문가들은 다 내부의 작간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족대결을 체질적인 악습으로 가지고 있는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동족을 《범인》으로 만들어보려고 생역지를 부리고 있지만 차례질 것은 지난 시기보다 더한 망신뿐이다.

본사기자 황진옥

의 성전, 조국통일대전으로 단호히 대답할 것이다. 현실은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이 땅에 핵재난을 몰아오려고 미쳐달뛰는 내외호전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에 한사랄같이 떨쳐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온 민족은 내외호전광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주인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자신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북남공동선인들의 기치밑에 조선반도에서 전평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총결기해나서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온 겨레의 투쟁에서 력사적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 제 민족을 해치려는 친미굴종의 극치

최근 미군의 생화학, 세균무기반입행위를 눈감아 주고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범죄행위가 드러나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폭로된데 의하면 지난해 6월 1일 남조선당국은 미군으로부터 탄저균과 페스트균의 반입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밀에 붙여왔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남조선당국은 《반입사실을 알고있었으나 총재조사로 국민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한 결과를 알리려다 발표가 늦어졌다.》는 해피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수작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이미 오래전부터 남조선에서 생화학무기실험을 해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60년대말 남조선강점 미군의 《식물통제계획 1968》이라는 비밀작전계획에 의한 고엽제살포, 1974년말 독해물인 《RH-787》의 귀

촉같은 인체실험, 1976년에 미국이 남조선에 퍼뜨린 류행성출혈열병원체 등은 미군이 남조선에서 벌인 비인간적인 생체실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전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이 탄저균과 페스트균실험을 서울 한복판인 룡산미군기지에서 최소 수십차례나 진행해온 사실이 폭로되어 물의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당국은 미국의 분한 조사로 국민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한 결과를 알리려다 발표가 늦어졌다.》는 해피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가관인것은 남조선보수당국이 북침전쟁과 동족대결을 위해 외세의 조선

민족말살책동에는 무력대고 추종하면서도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격으로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는 것이다.

민족의 안녕과 평화변영을 지켜주는 동족의 자위적핵억제력은 악에 차서 혈투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외세의 대량살륙무기를 마구 끌어들이는 남조선당국이야말로 민족을 등지고 겨레를 외세의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삼겨버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 천하에 둘도 없는 친미사대매국무리들이다.

대미굴종의 길은 참혹한 수난과 죽음의 길이다.

남조선 각계에서 《이런 미국에게 인도주의를 기대하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미군주둔을 애걸복걸하는 일은 〈언제든 죽이고싶을 때 마음껏 우리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나.》라고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사기자 서희

# 살기 위한 몸부림이 죄인가

남조선에서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이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남조선의 당주요층은 서울역에서 당국의 로동개악지침발표에 항의하는 대규모집회를 열고 총파업투쟁을 선언하였다.

집회를 마친 민주로총은 《마음대로 해고, 마음대로 취업규칙 개악, 투쟁으로 막아내자!》, 《로동개악 저지!》, 《〈정부〉의 구호를 들고 서울광장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어 민주로총은 25일 《정부》의 로동개악에 반대하는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하다면 남조선의 로동자들이 엄동설한의 강추위도 무릅쓰고 《정부》를 반대하여 총파업투쟁에 나서고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이다.

알려진것처럼 22일 남조선당국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운운하며 고용로동부를 내세워 《일반해고(저성과자 등)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완화》 등 이른바 《2대행정지침》이란것을 발표하였다. 이 《2대행정지침》이라는것은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의 미명하에 로동자들의 피땀을 짜내어 재벌들의 이익을 추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지침 분쇄!》 등의 구호를 들고 서울광장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어 민주로총은 25일 《정부》의 로동개악에 반대하는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을 비롯한 로동계는 물론 사회각계는 항시적인 해고의 위협과 로동조합의 파괴를 동반하는 남조선당국의 반민중적인 로동개악을 처음부터 반대하여왔다. 그러나 남조선보수당국은 대기업체들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자들의 의견과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반인민적인 로동개악책을 끝끝내 감행하였다. 당국의 로동개악책동에 반대하여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로동자들의 투쟁은 돈이 없으면 한시도 거슬리는 로조에 가입한 로동자들의 해고를 마

음만 먹으면 쉽게 할수 있게 하는것으로서 로동조합들을 파괴하는 로동개악지침이다. 로동자들이 숨은 물론 가정의 생계까지 위협당하게 된다.

이런것으로 하여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을 비롯한 로동계는 물론 사회각계는 항시적인 해고의 위협과 로동조합의 파괴를 동반하는 남조선당국의 반민중적인 로동개악을 처음부터 반대하여왔다. 그러나 남조선보수당국은 대기업체들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자들의 의견과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반인민적인 로동개악책을 끝끝내 감행하였다.

당국의 로동개악책동에 반대하여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로동자들의 투쟁은 돈이 없으면 한시도 거슬리는 로조에 가입한 로동자들의 해고를 마

하기 위한것으로서 지극히 정당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당국은 《불법집회》니 뭐니 하며 그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기도를 서슴지 않고있다. 남조선당국자가 《불법집회에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폭압지령을 내리고 이에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등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저저마다 나서 《불법집회》를 단호하게 막아내시겠다고 입을 게거품을 물고 나서고 있는것은 이에 대한 단적 실례이다.

현실은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국민행복시대》니 뭐니 하고 떠들지만 그들이야말로 다수의 인민들이 아닌 소수의 가진자들의 리익만을 대변하는 반인민적정착집단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본사기자 황진옥

# 동족대결의 생역지

세살치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동족을 걸고드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체질적악습이 새해에 들어와서도 여전하다.

최근 남조선의 정보원은 한 기업체에 대한 북의 《사이버테로》를 운운하며 동족에 대한 대결여론을 조성하고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족에 대한 험담과 트립잡기로 실적을 올리는 정보원이요 보면 이번 일도 동족대결을 위한 다나이의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원은 지금 《악성코드가 북이 2014년 미국의 《쏘니 픽처스》 해킹 때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며 저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있다. 미국상정만 내세우면

만사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주대없는 하수인들의 가련한 몰골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거짓을 증거로 삼은 론증이 진실일수 없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미국의 《쏘니 픽처스》 영화제작사가 2014년에 영문모를 해킹공격을 당하여 심한 피해를 입었다. 사건직후 미국은 해킹공격에서 《조선글자》가 발견되었기때문에 《북소행》일것이라는 감지 않은 꾀변을 늘어놓으며 공화국을 《사이버테로범》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미국집안 내부소행이거나 다른 나라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적인 조사결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이번 한 기업체에 대한 해킹사건이 터지자마자 《쏘니 픽처스》 해킹사건을 제격 끌어들이어 반공화



《외환위기때보다 더 참담한 심정》, 2016년 다시 레사롭지 않은 추위가 덮치고있다. 기온보다 더 싸늘한건 《가슴깊이 파고드는》 고용불안인 그림자다. 은행권에서 2015년 한해동안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직원은 3 600명에 이른다. ...이름은 《희망퇴직》이지만 상당부분은 강제퇴직이다. ...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운 이는 《막로동》에 나서기도 한다. 2015년 12월 22일

# 인권지옥에서 울리는 소리 추운 겨울 2016년

오전 4시 30분, 서울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주변 인력시장을 찾았다. 《○○인력개발》이라고 직원은 3 600명에 이른다. ...이름은 《희망퇴직》이지만 상당부분은 강제퇴직이다. ...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운 이는 《막로동》에 나서기도 한다. 2015년 12월 22일

짱을 깬채 추위를 견뎌내는 이들은 대부분 40~60대 남성, 어느 한 대학 졸업생(36살)은 《오전 6시반까지 차에 타지 못하면 그날 하루는 허탕치는거다. 일용직구하기도 만만치 않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건설근로자 4명중 1명가량은 대학졸업자다. 고용로동부

은 39.6%에 달했다. 취업하지 못한 대졸자들이 건설현장을 찾고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

10여년전까지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했다는 한사람(55살)은 《나처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 그만큼 살기가 팍팍해졌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

2016년, 또 한번 겨울이 들이닥치고있다. (《주간동아》 2015년 12월 30일호에서 게재)



# 성노예 범죄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지금 일본이 지난해말 남조선과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그 무슨 《합의》를 조작하고 그것으로 국

악한 반인륜범죄가 다 산된듯이 머리를 쳐들고 다니는것은 우리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 세월에 풍화될수 없는 특대형 범죄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치명적인 죄악인 남조선과 일본의 그 무슨 어정쩡한 몇마디 《합의》로 과연 없었던것처럼 될수 있는것인가.

원칙적요구가 명백히 반영되어있으며 1998년 이 딸리아 로마에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약규범 제7조에는 이러한 행위가 전쟁범죄, 성범죄로 된다고 밝혀져있다.

절대로 그렇게 될수 없다.

조선을 강점하고 40여년간 잔악무도한 식민지 지배를 일삼은 일본의 죄악 특히 일본군성노예범죄행위는 인류사와 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범죄이며 국제범죄로서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조선을 강점하고 《대동아공영권》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시아침략에 나선 일본은 일본군의 《전투적사기를 높인다.》는 미명하에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등지의 녀성들을 강제잡치, 련행하여 문명의 20세기에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가장 야수적이며 반인륜적인 성노예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일본군성노예범죄행위는 국제법규범들에 대한 엄중한 위반일뿐 아니라 국제형사판계규범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로서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국제범죄행위이다.

1907년 10월 18일에 조인된 《전쟁법규와 관습에 관한 협약》과 그를 구체화한 1949년 《전시사민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등에는 녀성들에게 폭행을 가하지 말데 대한

제조약》 등 국제협정조약들의 명문으로 규정된 녀성들의 매매, 성적강탈 금지조항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일본군성노예범죄행위를 감행한것이다.

1933년 3월 그들이 수락한 국제협정조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제련맹에서 탈퇴한 일본의 행위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성노예범죄와 같은 반인륜범죄를 로골적으로 감행하려는 범죄적 의사의 적극적인 실천이었다.

《대동아공영권》이라

## 정지전쟁이의 과거부정

우의 자료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본이 감행한 성노예범죄행위는 위협성과 위법성, 가벌성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히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일본은 패망한 이후에도 저들의 성노예범죄행위를 은폐시키고 무마시키기 위한 갖은 책동과 권모술수를 다 써왔다.

전후 근 반세기 녀성들의 권리를 존중할데 대한 여러가지 국제조약들과 집단살해를 막기 위한 수많은 국제조약들이 나왔지만 일본은 저들의 과거성노예범죄행위를 비밀로 불어오면서 이것이 흑막속에 묻혀지지만을 바래왔다.

그러다가 1989년에 와서야 남조선의 여러 녀성단체들이 성노예감행 자료들을 발굴공개한것을 계기로 일본군성노예범죄행위가 드러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저들의 극악한 성노예범죄가 드러난 이후에도 그것을 로골적으로 부정하였다. 지금까지 일본은 《위

를 보여주었다. 도이칠란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인류에게 감행한 범죄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수십년간에 걸쳐 그에 대한 배상을 해온것은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노력의 발현이라고 볼수 있다. 도이칠란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세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있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는 너무나도 판이하다.

얼마전에도 일본총리 아베는 해외에 나가서까지 성노예피해자들을 《인신매매피해자들》이니 뭐니 하며 일제가 조직적으로 강압과 폭력으로 저지른 성노예범죄를 일부 개개인에 의한 문제로 둔갑시키면서 일본의 특대형과거죄악을 부정하는데 열을 올리었다.

과거 범죄에서 벗어나 보려는 파렴치하고 간혹 이러한 몸부림은 정치난쟁이, 일본만이 할수 있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이것은 과거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게 다시한번 정신적피해를 주는 또 하나의 범죄로 된다.

력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과거범죄력을 덮어두고 외곡하려는 일본의 행위는 결국 저들의 침략본성을 버리지 않으며 언제든지 기회만 조성되면 또다시 그와 같은, 그보다 더한 범죄도 서슴없이 감행하려는 새로운 범죄시도로 되는것이다.

그러나 눈덩이이는 굴릴수록 더 커지듯이 일본군성노예범죄를 감추고 부정할수록 일본당국에 대한 세계의 비난과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있다. 일본군의 성노예범죄를

일본은 과거죄악을 덮을수록, 사회와 배상의 시각이 늦어질수록 인류앞에 최악만 덧쌓여질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 《최종적, 불가역적》 - 범죄국의 파렴치한 꾀변

지난해말 일본과 남조선사이의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위한 《합의》에서 일본은 성노예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떠들어댔다.

올바른 사회와 반성도 하지 않은 범죄국이 주제넘게 《최종적, 불가역적》을 론하고있으니 강도가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한 흑백이 전도된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일본국의 명령지휘에 따라 일본군이 감행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감행된 국제범죄인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응당 그에 따르는 국제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제법에는 국제범죄의 법적처벌을 손해배상으로 할데 대하여 명백히 규정되어있다.

1907년 《특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그협약》 제3조에는 《본 협약규칙의 조항들을 위반한 교전당사국은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교전당사국은 그 군대를 구성하는 인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1930년 네테를란드 헤그에서 진행된 성문법전화회의 제3위원회에서 일팔채택된 《국가책임법초안》에는 《국가의 국제적책임을 국제적의무로 준수하지 않는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수반한다.》라고

박희철

# 일본의 치명리는 조선강점죄악

일제가 《조선통감부》를 설치한 때로부터 110년이 되어온다.

《조선통감부》(후에 《총독부》)는 조선봉건왕조의 일체 대내외정책을 장악통제하고 우리 민족의 반일투쟁을 탄압하며 조선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자연부원을 약탈한 일제식민지통치의 최고기구였다.

1905년 《을사5조약》을 낳조한 일제는 련이어 1906년 2월 1일 식민지통치기구인 《조선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야만적인 파쇼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가 조작해낸 《통감》은 당시 조선에서 립법, 사법, 행정, 군사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진 최고통치자였다.

일제는 《통감》통치의 《합법화》를 위해 1905년 12월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를 조작하였다. 이에 따라 《통감》은 일본왕의 직속으로 되어 조선에서 외교관계문제와 관련한 법령이나 조약들을 정지, 취소시키며 조선사람들을 마음대로 구할수 있는 권한과 무력사용을 명령할 권한 등을 가지게 하였다.

일제는 《통감》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침략군과 헌병, 경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조선의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시키는 한편 조선봉건왕조의 모든 실제상권한을 박탈하고 저들의 승인없이 황제가 아무런 칙령이나 지시도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조선사람들이 황제를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였다.

일제는 《통감》통치시기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뜨였다. 이 시기 일제는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조선의 반일애국자들과 의병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의병들을 도와주었다고 하여 조선의 주요도시들은 물론 산간벽지의 마을들까지 《토벌대》들을 들이밀어 사람들을 닦아내도록 죽이고 폐허로 만들었다.

또한 조선은 저들의 원료원천지,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광물채굴법》, 《어업협정》,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불평등협정과 식민지현거거하자면 끝이 없으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지울수도 감출수도 없다.

수많은 토지를 제마음대로 강탈하였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거세하고 식민지노예굴종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1906년 8월 《보통학교령》을 발표하였으며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여 애국적이며 반일적인 사립학교들을 강제적으로 폐쇄하였다.

이 기간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를 비롯한 일본날강도들은 조선의 문화재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반일적인 사립학교들을 강제적으로 폐쇄하였다.

《통감부》는 1910년 《한일합병》 이후에는 《조선총독부》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일제의 식민지강점기간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악랄한 탄압과 약탈, 민족동화정책실현의 총본산으로 되어왔다.

식민지강점기간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죄악을 렬거하지 않으면 끝이 없으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지울수도 감출수도 없다.

일제의 야만적인 40여년의 식민지통치기간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되고 840만여명이 강제징용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일제침략군의 성노예로 끌려가 청춘도 생명도 짓밟히지 않으면 안되었다.

력사에는 침략군의 타민족에 대한 악행과 죄악에 대한 기록은 많지만 일본제국주의자들처럼 남의 나라 황궁을 습격하여 《국모》를 도둑하고 성과 이름까지 빼앗다 못해 녀성들을 전령터에 성노예로 끌고다니며 갖은 악행을 다한 잔악무도한 침략자는 알지 못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반동들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도할 반인륜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도리어 식민지력사를 《찬양》하고 재침의 망상을 꿈꾸면서 미국의 대조선 침략책동에 동조하여 갖은 못된것을 다하고있다.

최근년간 세계의 공정권선력이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력사의곡책동과

정치인들의 련이은 망발,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자위대》를 군대로 개편하려는 책동, 《집단지위권》의 명분밑에 해외진출의 길을 열어보려는 행위 등이 그를 실증해주고있다.

격분할수밖에 없는것은 일본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식민지강점죄악에 대한 사회와 배상거부, 공화국에 대한 재침행위에 맞장구를 치고있는 현남조선집권세력의 추악한 매국배적책행동이다.

지난해말에도 남조선당국은 일본과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어물쩍해넘겨버리는 그 무슨 《합의문》이라는것을 만들어내고 이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피해자들은 물론 온 겨레의 분노를 치솟게 하는 친일매국행위가 아닐수 없다.

과거 일제가 우리 겨레에게 저지른 치명리는 죄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가리워질수 없으며 우리 민족은 그 죄값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로 일 남

